

중앙-지방이 함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 고용노동부 장관, 화성시장 및 산업안전지킴이와 함께 합동점검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고용노동부는 '26년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9.(금) 09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화성시는 '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25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되며,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 물질 여부,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화성시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분야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을 수 있는 길목(접점)을 확보해 나간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면서 위험설비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도 연계한다.

* '26년 143억(10개소 내외, 1개소당 10~25억 내외),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이 함께 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만난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서,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면서 타 지방정부로 확산하여 안전한 일터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로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문제가 가장 절실한 지역인 만큼, 산업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 왔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때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개요

붙임 2: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간담회 개요

붙임 3: 간담회 인사말씀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일터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경민 (044-202-888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정탁 (044-202-8881) 이근배 (044-202-8882)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진수 (044-202-8937) 김병석 (044-202-8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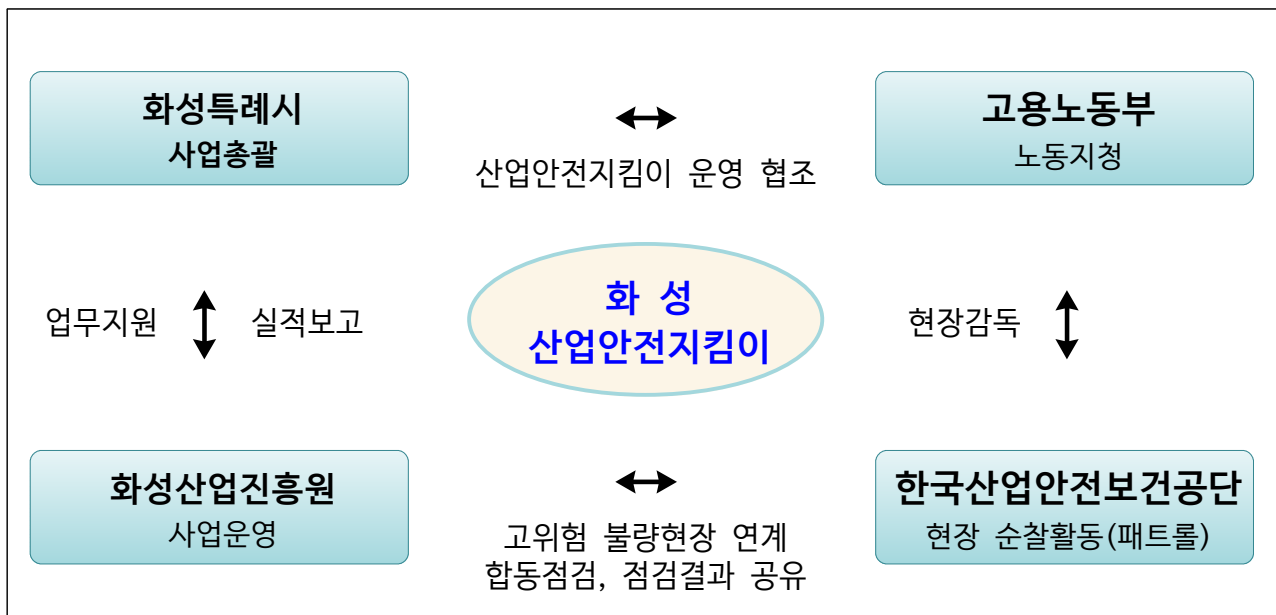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아리셀 공장 화재('24.6.) 이후 대규모 제조업 사고와 관리 사각지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예방·대응 체계 마련 필요

□ 활동사항

-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등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 생명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
 - * (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 산업안전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발, 3인 1조로 10개조 편성하여 화재·유해물질 및 작업환경 등 점검

구분	점 검 내 용
화재	가연물 관리, 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안전관리자(감독자) 교육 등
유해물질	화학설비 건축물 구조 확인, 덮개 등 접합부, 안전밸브 및 차단밸브 설치 여부
전기·물리적 작업환경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여부확인,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상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조치



☐ **일시 · 장소**

- (일시) '26. 1. 9.(금) 09:00~11:30
- (장소) 화성시청 상황실(2층)

☐ **참석자**

-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경기청장, 안전보건감독국장 등
- (화성시) 화성시장, 산업안전지킴이 등

☐ **논의 사항**

-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와 사례 공유 및 '26년도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 논의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00~10:00 60'	• 참석자 소개 •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성과·계획 공유 및 향후방향 논의	■ 모두말씀까지 공개
10:00~10:30 30'	• 사업장 이동	
10:30~11:30 60'	• 합동점검 실시 및 강평	■ 화성시장 동반 점검

반갑습니다. 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님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
그리고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정부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일터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작년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9.15.)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사 대표들과 만나고
법·제도 개선과 함께 '26년도 산재예방을 위한 예산도
1조 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 병오(丙午)년에는
10대 경제 강국, 문화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강국으로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이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첫걸음은 “위험 격차 해소”입니다.

소규모 현장 말단까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길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할 때,
산업안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현장에 빈틈없이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특례는 2001년 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 21만명의 자그마한 도시에서
2025년에는 백만명이 넘는 특례시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만큼,
'25년 서른 분으로 처음 시작한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가
향후 화성시의 안전한 일터를 일구어내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올해 노동부도 정가지청을 정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고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등
부서와 인력을 추가로 증원한 만큼,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기술지도-재정지원을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